

머무는 곳마다 지장도랑 일귀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묘허 스님 (단양 방곡사 회주)

도심의 길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12월의 백주대낮.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방곡사로 들어가는 길은 밤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적막했다. 경내에 들어서기 전까지 인적은 거의 없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캄바람소리만 나그네를 맞이할 뿐이다.

방곡사에 들어서니 묘허 스님은 법당에서 신도들과 사시불공을 하고 있었다. 스님은 법문 초청이 있어 다른 사찰에 가더라도 반드시 사시에는 법당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했다.

기도를 끝내고 회주실에서 만난 스님은 "아직 점심 공양전이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선 밥부터 먹읍시다"며 공양간으로 안내했다. 스님에게 점심공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루에 점심만 먹으면 스님에게는 지금이 하루중 유일한 식사시간이다. 한끼만 드시는데도 무척 건강해 보였다.

"일종식만 해도 살아가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투명해지는 것 같아 좋아요."

음식에 대한 집착이 많은 속세인의 고정관념으로는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염려돼 물어보니 스님은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안심시켰다.

스님에게 일종식의 원칙 말고도 자신과의 약속이 하나 더 있다. 전국 어느곳에 가서 법문을 하더라도 밥에는 반드시 방곡사로 돌아와 잠을 잔다. "내 집을 놔두고 다른곳에 가서 자면 수행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법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한방중에는 절로 돌아옵니다." 얼핏보면 당연한 원칙 같지만 광범한 것을 오히려 가벼이 여기며 사는 속세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그 엄격함이 무척 거북해 보였다.

겨울철이라 법문 초청이 많지 않은 요즘 묘허 스님은 방곡사 불사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방곡사는 선원과 대웅전 불사가 한창이다. 공양 후 불사 현장구경도 할 겸 산책이나 하자며 경내 구석구석을 안내한 스님은 거대한 지장보살상 앞에 서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스님은 "내가 그동안 불사한 신탄진 신흠사, 김해 원명사가 다 지장도랑인데 왜 그런줄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설명이 이어졌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은사인 화엄 스님 영향이 커요. 은사스님은 모친의 권유로 일본 오사카 의대를 졸업하셨지요. 그 후 2차대전 때 군의관으로 끌려가자, 은사스님의 모친이 매일 저녁 등을 밝혀놓고 지장보살님께 지극 정성으로 무사안녕을 기원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은사스님의 모친이 기도중 등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상한 체험을 하게됐지요. 바로 그날밤 군대 막사에서 잠이든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바로 인생인가 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업(業)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요. 선방 도반들과의 인연을 뿌리치지 못해 신탄진 신흠사에 머물다가 신도들의 요청으로 주지직을 18년이나 맡았으니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인연때문에 계속 주지직을 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잠선 공부만큼은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묘허 스님이 현재 후학들을 위해 선원(무문관)을 짓고 있는 것도 바로 수행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유서깊은 고찰이라도 스님들이 수행하지 않으면 한낱 마구니 소굴에 지나지 않으며, 초가삼간일

일종식과 절에서 잠자는 것 원칙...수행리듬 철저히 지켜 주지 소임 18년 맡는 동안도 참선공부 게을리 하지 않아 철저히 수행해야 깨달음 빨라, 현재 '무문관' 불사 중

은사스님은 잠결에 어머니가 부르는 소릴 듣고 막사밖으로 뛰쳐나왔답니다. 잠시 후 그 막사는 미군들의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은사스님만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은사스님은 그 후 모친의 뜻을 이어 일생동안 지장기도만 하셨지요."

은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머무는 곳마다 지장도랑으로 일군 묘허 스님은 주위에서 보기도문 효상좌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50여년 출가생활동안 여러사람의 주지 소임을 맡으며 불사도 많이 했지만 묘허 스님의 원래 꿈은 평생 선방수좌로 사는 것이었다. 어릴적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주지자리나 맡내고 재물이나 좃으면 사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묘허 스님은 강원을 졸업하고 연이어 11하 안거를 성만했다.

지라도 수행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많다면 바로 그곳이 영험도랑이라는 생각에서다.

"불교는 개신교 등 다른 종교와 달리 자기 스스로의 수행력에 의해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자력성이 강한 종교입니다. 똑같은 목적지라도 걸어가는 것보다 자동차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듯이 수행에도 가속력이 붙으면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철저히 선방에서 수행에 몰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생각에서 하루라도 빨리 무문관 불사를 앞당기려고 묘허 스님은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돌봐한다.

스님은 마지막 발원인 대적불사의 원만 회향을 통해 이 무문관에서 출현할 수많은 선지식들을 머뭇속에서 그리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린다. 글=김주필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수행에 가속력을 붙여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철저히 선방서 수행에 몰두해야 한다는 묘허 스님은 요즘은 후학 양성을 위해 무문관 불사에 전념하고 있다.



세로 88 cm x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교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인 신성, 金義暻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를린 와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돌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펫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소장 인원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펫라 불광사에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해 KBS 역사 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제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 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훬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중지갑(검정)
여성용레노노 지갑(적색, 보라색)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동서 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고 여러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훬 복지갑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 들까지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 오는 육자대명왕진인 옴마니반메훬 지갑이 출시 6개월 간에 수만 화제를 낳고 있다.

남성용중지갑 65,000원
여성용중지갑 9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